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Large Encounter Group Experiences for Self-Awareness

Joo, Eun-Sun (Duks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im, Hee-Jin<sup>1)</sup> (Duks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Student)  
Ahn, Ho-Won (Duks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Student)

---

---

< ABSTRACT >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large group encounter participation to provide basic understanding of large group experiences and the possibilities of various modes of university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posed were: First, what did the undergraduates who participated in the large encounter group generally experience? Second, what did they find out and what changes did they experience? Third, what were the problems and the limitations reported by them? This research used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attending a certain women's university in Seoul, taking a group counseling course.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alyzed b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which analyzes numerous subjective experiences, and categorizes and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 As a result, 16 categories were derived, which were grouped into 3 domains: 1) the challenge of the large group, 2) the process of finding the authority/power to deal with issues, and 3) the independent recovery of my lif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which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understanding of the large encounter group experience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 the large group encounter as a possible way to improve individual self-awareness and various aspects of education. We also provide idea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Person-centered, large encounter group, undergraduate, self-awarenes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

1) Corresponding Author: Kim, Hee-Jin, Master's Student,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144-Gil, Samyang-Ro, Dobong-Gu, Seoul, Korea, 01369 / Email: heejink@duksung.ac.kr

## 자기성찰을 위한 학부생들의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은선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희진<sup>1)</sup> (덕성여자대학교, 석사과정생)

안호원 (덕성여자대학교, 석사과정생)

---

### < 요약 >

---

본 연구는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한 학부생의 체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한 다양한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집단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둘째,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무엇을 알게 되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 셋째,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한 학부생들이 경험한 문제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다. 현상학 기반의 질적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에 소재한 4년제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학부 과정 중 집단상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얻었으며, 다수의 주관적인 체험을 범주화하여 공통의 주제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합의적 질적 연구의 수정본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1) 대집단의 도전, 2)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 3) 내 삶의 주제성 회복의 세 영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써 대집단 엔카운터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기성찰과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으로서의 대집단 엔카운터를 논의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 인간-중심, 대집단 엔카운터, 대학생, 자기성찰, 합의적 질적연구.

---

1) 교신저자: 김희진, 석사과정생, (01369)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 Email: heejink@duksung.ac.kr

논문투고일자: 2020. 2. 15 / 심사일자: 2020. 2. 17 / 게재확정일자: 2020. 3. 5

## I. 서론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9)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 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교육 경쟁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은 미뤄둔 채 성인기에 접어든다. Erikson(1968)이 청소년기의 핵심과제로 꼽은 자아 정체감 형성은 자연히 대학 생활의 과제로 미뤄지며, 대학생 시기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전환기가 된 것이다(Sohn & Choy, 1992).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대학생이 된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취업을 위한 학점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많은 대학이 학생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초기에 생활지도 혹은 학업 성취동기, 자존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Lee & Kim, 2000).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집단을 이룬다 하더라도 12명 내외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Cho, 2019). 이처럼 학생들의 자기 이해와 심리적 성장을 위한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Lecomte, Savard, Drouin, & Guillon, 2004), 이는 상담 교육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상담자가 되기 위한 초기 발달 단계인 학부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성찰은 중요한 요소임에도(Lee & Lee, 2015), 대부분의 심리학과 커리큘럼은 이론적 지식을 위한 수업들을 편성하는 것에 집중하며, 학과 커리큘럼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역시 성과와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Rogers가 고안한 엔카운터(Encounter) 집단은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Rogers(1970)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일치성의 태도를 갖춘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체험 집단을 통해 수련생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엔카운터 집단의 시작이었다. 구조화된 일반집단상담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촉진한다면, 엔카운터 집단은 비구조화된 형태로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집단과정에서의 관계성과 따뜻함, 친밀감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엔카운터 집단은 집단 내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하여 그가 속한 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실험실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Rogers, 1970).

엔카운터 집단이란 집단 내에 상당히 촉진적인 분위기만 조성되면 그 집단은 그 자체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 구성원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Rogers, 1970). 보통은 6~20명의 집단원이 참여하는 비구조화된 소집단 만남으로

진행되며 시작과 종료 시각 외에 정해진 것이 없다(Lee, Kim, Seol, Kim, & Kim, 2010). 엔카운터 집단은 두 가지 주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험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도자나 촉진자의 역할은 집단참여자들의 표현을 촉진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Brison et al., 2015). 최소한의 인위적 조작과 최대한의 허용적 분위기 안에서 전통적 의미의 집단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 활동의 책임은 구성원 모두가 부담한다(Park, 1992).

엔카운터의 또 다른 특징은 30~4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집단 엔카운터는 소규모 엔카운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Mearns, 2014). 대집단에서는 구조화를 통해 안전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소집단보다 더 실제적인 상황을 가감 없이 제공한다. 집단의 크기는 불안감과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집단의 크기와 집단원의 다양성은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며,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의 크기가 지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집단은 크게 4단계 ‘예의 바른 인내심’, ‘혼란과 갈팡질팡함(허둥댐)’, ‘잠재력 목격하기’, ‘개방과정에서 작업하기’로 발달한다(Mearns, 2014). 집단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갈팡질팡하게 하지만 집단의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더 이상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집단 내에서 전보다 쉽게 개방하고 자발적이다. 자신을 실험하고 일치성을 발달시키는 데 대집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집단원들은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대집단 엔카운터라는 무대를 통해 실제적인 상황을 제공하고 집단원들은 작은 시도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적 실험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여러 측면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촉진자가 전문가로서 집단을 이끄는 것이 아닌 대집단이 주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통해 집단원들은 그들이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엔카운터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규모 집단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를 측정하여 여러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거나 치료적 요인을 찾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Jeong, 2002; Joe, 2003; Kang, 1999; Kim, 2000; Kim, 2003; Kim, 2003; Kim, 2006; Lee, 2002; Lee, 2019; Min, 2003; Park, 1996; Ryu, 2013; Sin, 2005; Yoon, 2003; You, 2011). 그 외에는 소수의 연구만이 엔카운터 집단상담의 경험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Kang, 2013; Kim, 2000; Kim, 2019; Lee, 2013; Park, 2014).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소집단 엔카운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 과정에서의 비구조화된 대집단 엔카운터는 다양한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집단 엔카운터에 관한 연구는 엔카운터 운동이 전성기였던 1960-197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Bowen, Maria, Maureen, Rogers, & John, 1979). 최근에는

엔카운터의 역사(O'Hara, 2019), 현대의 사회적 문제(Barfield, 2019; Haley & Yates, 2019), 양문화주의 (Bicultural) (Haenga, Solomon, Woodard, Rodgers, & Tudor, 2019), 집단 운영 방식과 촉진자(Draskóczy, 2019; O' Leary, 2019; Wilson, Chazeaux, Francis-Smith, & Dunn, 2019; Zauner, 2019), 교육과 심리 치료 훈련으로써 엔카운터(Bazzano, 2019; Motschnig, 2019; Ray, 2019)와 같은 주제로 경험적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Motschnig(2019)은 엔카운터 집단을 경험한 학부생들이 감정, 의미, 의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며 적극적인 경청 자세의 발전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Brison et al.(2015)은 또한 실험설계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엔카운터 집단이 상담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의 치료적 태도와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담자의 자기 개발과 경청기술 학습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집단 엔카운터는 교수 1명과 수십 혹은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학부 강의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다수의 학부생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상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해 학부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상담이라는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집단상담인 대집단 엔카운터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교육에서 실습 교육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한 학부생들의 내면 경험을 알아보고 대집단 엔카운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주관적인 체험을 범주화하여 공통의 주제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의 수정본 'CQR-Modified'를 자료 분석 도구로 이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이 경험한 것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데 효율적이다(Kwon, 2011). 특히 내적 경험이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며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Park, 2014).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집단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둘째,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무엇을 알게 되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 셋째,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한 학부생들이 경험한 문제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여자대학교에 재학생들로 집단상담 과목 수강생들이다. 참여자들은 총 39명으로 전원 여성이며, 학년은 1학년 1명(2.6%), 2학년 6명(15.4%), 3학년 17명(43.6%), 4학년 15명(38.4%)이다. 학과는 심리학과 24명(61.5%), 사회복지학과 4명(10.2%), 아동가족학과 2명(5.1%), 중어중문학과 2명(5.1%), 철학과 2명(5.1%), 기타 5명(12.8%)이다.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대집단 엔카운터 실시에 앞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대집단 엔카운터 진행 중이라도 집단을 떠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후 대집단 엔카운터 비밀 보장동의서 및 연구 참가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자료수집은 2016년 6월에 주 1회 2시간씩 2회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대집단 엔카운터 집단상담의 절차는 1회기에는 도입부에는 집단의 기본 규칙과 종료 시각을 공지하고, 참가자들이 자기소개하며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을 공유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개인적인 주제들을 꺼내며 역동이 발달했다. 2회기는 지난 회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참가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서로 지지하기도 하며 집단과정이 발전해 나아갔다. 마지막으로 최종 소감을 나누고 종결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한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반구조화된 CQR 질문지에 대집단 엔카운터를 종료한 후 1주 이내로 서면 응답을 받았다. 질문은 ‘인간중심접근의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에서 자신에 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인간중심접근의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에서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인간중심체험 대집단 엔카운터를 자신의 느낌으로 표현하시오.’, ‘인간중심체험 대집단 엔카운터를 앞으로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집단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기타 의견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시오.’ 이다.

연구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과정

### 3. 분석팀

자료 분석팀은 3인으로, 2인은 상담심리 전공의 석사과정 재학생이고 1인은 심리학과 4학년 학부생으로 상담 연구실에서 다수의 연구 보조를 하였다. 감수자는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담 전공 교수로 20여 년을 재직 중이고 CQR과 CQR-M 등을 사용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인간중심 관련 저서와 CQR 저서를 집필하였다.

분석팀은 총 3번의 사전모임에서 CQR-M과 분석절차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했으며, 분석 기준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본 연구에 대한 기대와 편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조화된 대집단 엔카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을 것, 학부 과정에서 짧게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학부생들의 깊이 있는 변화의 경험이 나오기 힘들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대와 편견이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팀 이외의 전문가에게 자문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을 사용하였다. CQR-M은 CQR의 수정본으로 현상학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보통 한 명의 연구자가 소수의 참여자의 경험하는 본질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하지만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편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참여

자를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CQR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만남으로, 각 사례를 분석할 때는 개별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며, 합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례를 수치화할 수 있어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Hill, 2012). 또한, 문헌만으로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기존의 질적 분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수의 사례를 귀납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명의 평정자가 합의와 감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Hill, 2012).

특히 CQR의 수정본 CQR-M은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현상과 주제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며, 다수의 대상에게 서면으로 응답받은 비교적 짧고 단순한 내용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Hill, 1990; Mahrer, 1988). 또한, 연구된 현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기본 지식을 확장하며,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도 적합한 통합적 방법이다(Hill, 2016). 따라서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변화의 경험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9명의 참여자가 응답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여 다수의 대상이 경험한 양상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CQR-M 분석방법을 선택했다.

Spangler, Liu, & Hill(2012)에 따르면 CQR-M의 분석절차를 자료수집, 영역과 범주 목록 개발, 분석팀 선정 및 훈련, 코딩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본으로부터 설문지로 응답을 표집하고 분석절차를 거쳐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팀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범주를 수정·보완하고 여기에 최종 자료를 코딩했다.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참가자가 서면으로 응답한 자료를 해석하여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지만, 분석팀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하며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었다. 합의에 앞서 각 분석자가 자료를 살피고 해석하여 핵심요인을 구체화했으며, 각자가 해석의 근거를 증거로 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대와 편견을 배제하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분석 이전에 서로가 본 연구에 가지는 기대 및 편견을 논의하였다.

## 5. 영역과 범주 구성

두 명의 주 연구자는 모든 응답을 종합하고, 그중에서 분석에 포함할 내용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학부생들이 대집단 엔카운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탐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자와 분석팀은 경험에 대한 선별 기준으로 ‘인간중심 상담이나 엔카운터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제외’ 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경험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할 때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포커싱적 표현에 대한 것이 아닌, 대집단 엔카운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에 대해 ‘단순히 느낌



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 표현했는지 서술한 경우에만 포함' 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술한 기준을 바탕으로 주 연구자 2인은 편견과 기대를 배제하기 위해서 반구조화된 질문을 삭제한 후 응답 자료에서 의미 있는 응답들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범주와 영역을 일차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후 분석팀은 각자 원자료를 숙지하고 함께 총 2번의 분석과정을 가졌다. 각 분석과정은 모두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팀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범주 자료로 인정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범주와 영역의 명칭 또한 분석팀의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영역과 범주에 맞는 경험들을 분류하였고, 각 범주와 영역의 배타성, 일관성, 대표성이 확보되었는지 비교하며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원자료에 근거해 의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통해 범주를 제거하거나 나누고 새로 만드는 수정 작업을 하였다.

CQR-M은 비교적 간략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정자 간의 불일치가 논의를 통해 쉽게 합의되어 따로 감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Spangler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역 및 범주 구성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감수자 1인에게 중간 및 최종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영역의 명칭을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고, 범주를 병합하고 나누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수차례 거치고 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여, 총 3개의 영역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 6. 빈도 및 비율 계산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역과 범주를 기준으로 응답들을 코딩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호한 내용의 자료가 발견될 때는 분석팀은 원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합의하여 코딩했다. 또한, 전체의 인용문(156건)중 각각의 응답에서 한 참여자가 서로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을 여러 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코딩하여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한 참여자가 같은 의미의 응답을 여러 개 한 경우에는 한 번으로 계산하였다. 비율은 각 범주에 해당하는 반응 수를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각 영역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 순으로, 각 범주를 잘 나타내는 내용(사례)과 함께 제시하였다(<표 1> 참조). Spangler et al.(2012)에 따르면 범주간의 비교기준이 최소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범주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분석된 결과를 모두 기술하였다.

<표 1> 대학생이 경험한 대집단 엔카운터 체험의 영역과 범주

영역	범주	빈도(%)	내용
1. 대집단이 주는 도전	1) 생소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내 생각 전달하기	13 (33.3)	집단의 압력이 느껴져서 의견을 내지 했다. / 현재의 기분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적응되지 않았음.
	2) 갈등 상황들을 체험하거나 바라보기	9 (23.0)	또한 구성원 간의 피드백으로 감정이 상하거나 깔끄러워질 듯한 분위기가 보여 힘들기도 했다. / 나는 그 갈등을 불편해 한다는 것 또한 느꼈다.
	3)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오는 혼란	6 (15.3)	인간중심이론에서는 효율성 확실성을 강조하지 않는데다가 비구조화 상담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답함. / 한편으로는 통계에서 벗어나는 느낌. / 집단이 아무런 체계 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왠지 불안했던 감정.
	4) 집단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	5 (12.8)	인원이 많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언제나 존재 / 인간중심체험 집단상담할 때 팀을 두 개로 나누었으면 좋겠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집단 상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음.
	5) 침묵에 대한 양가감정 경험	3 (7.6)	말을 하기 싫은 날에도 침묵은 저항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나싶어 말을 하려고 노력. / 나는 침묵을 깨고 싶어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2.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	1) 공감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지지받기	22 (56.4)	'나' 를 소중하게 여기는 구성원들을 봄. / 이를 통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공감과 이해받는 느낌을 알았음.
	2)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	13 (33.3)	낮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음. /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음.
	3) '어두운 길에서의 가로등 불빛'	12 (30.7)	인간중심 체험 집단 경험은 제게 "어두운 길에서의 가로등 불빛" 같음. 막연했던 집단 상담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대낮같은 빛은 아니지만 작은 통찰과 자각이라는 가로등 불빛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함. / 나는 이론과 관련하여, 엔카운터 경험을 통해 내 안에 문제들로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않음' 이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찾고 있는 단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
	4) 침묵을 받아들이기	7 (17.9)	침묵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함. / 집단에서 침묵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
	5) 갈등 자체가 아닌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짐을 자각함	6 (15.3)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쌓여서 정말 별 거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터짐. / 옛날에는 조금만 갈등이 찾아와도 엄청 예민하게 터진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쌓였던 것들이 터진 것이지 내가 그 순간의 갈등의 느낌을 못 견뎌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음.

	6) 갈등에 온전히 머무름	4 (10.2)	차라리 갈등에서 오는 부정적 느낌들을 엔카운터 시간에 충분히 느끼니까 나중에 그 불쾌했던 감정이 많이 생각나지 않고 빠르게 열어짐. /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에도 온전히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걸 배움.
	1) 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	17 (43.5)	행동방식이 아니라 존재방식이 중요하다고 배웠음에도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 / 지금, 현재의 나. 실존하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됨.
	2) ‘나의 삶, 나의 반응의 주인공이자 권위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10 (25.6)	나는 스스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구성원 중,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고, 자각하는 것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 / 기본적으로 유일한 동기화 된 힘이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며 결국 내 삶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낌.
3. 내 삶의 주체성 회복	3) 내 안의 또 다른 가능성 발견하기	6 (15.3)	평소에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보다” 생각했던 것 들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됨. / 나는 자존감이 낮아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타인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점을 깨달음.
	4) 내 감정을 알게 됨	6 (15.3)	외향과 내향이 반반인 성격으로 매순간 양가감정이 들어서 힘들지만, 인간중심체험을 통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빠르게 드러내면서 복잡한 감정이 명료해 질 수 있어서 좋았음. / 나의 미해결된 감정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음.
	5) 타인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나의 잣대 내려놓기	4 (10.2)	엔카운터 집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추측과 판단으로 인해 타인을 너무 많이 평가하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음. / 힘들었던 점은 솔직하게 임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게 어려웠다는 점.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한 학부생들의 체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써 이들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대집단 엔카운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6개의 범주와 대집단이 주는 도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 내 삶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결과를 각 영역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 순으로, 각 범주를 잘 나타내는 내용(사례)과 함께 제시하였다.

## 1. 첫 번째 영역: 대집단이 주는 도전

대집단이 주는 도전은 총 5개의 범주로, 생소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내 생각을 전달하기, 갈등 상황을 체험하거나 바라보기,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오는 혼란, 침묵에 대한 양가감정 경험, 집단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범주가 나타났다. 대집단 엔카운터는 일반적인 소집단상담과는 달리 10명 안팎의 사람이 참여하고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집단 촉진자가 리더로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집단상담과는 달리,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리더가 없이 많은 집단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 가. 범주1 - 생소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내 생각을 전달하기

대집단은 비구조적이라 참여자들이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주제가 없어서(Mearns, 2014), 집단의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은 집단의 체계를 찾고 비지시적인 방식에 혼란을 겪어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가벼운 대화를 하게 된다(Jorgensen, 2016). 비구조화된 대집단을 경험하며 참여자들은 집단의 크기에서 오는 낯선 느낌과 집단의 압력을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대집단이 참여자에게 주는 도전으로 보인다. 이런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18) 집단의 압력이 느껴져서 의견을 내지 못했다. (참여자3) 현재의 기분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적응되지 않았다.

### 나. 범주2 - 갈등 상황을 체험하거나 바라보기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만큼 서로 민감한 이슈가 달랐고 한 참여자의 발언이 다른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했다. 참여자들은 갈등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으며, 갈등 상황을 바라보며 갈등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갈등을 경험하며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며,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참여자14) 또한, 구성원 간의 피드백으로 감정이 상하거나 껄끄러워질 듯한 분위기가 보여 힘들기도 했다. (참여자16) 나는 그 갈등을 불편해한다는 것 또한 느꼈다.

### 다. 범주3 -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오는 혼란

참여자들에 의해 집단의 주제나 구조화가 시도될 때 참여자들에게 좌절과 저항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인다(Jorgensen, 2016). 주제와 과정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대집단은 비구조화되어 있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참여자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아 혼란을 주고 갈팡질팡하게 된다(Mearns, 2014). 대집단의 이러한 자유로움은 답답함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느낌 혹은 체계가 없음에 대한 불안함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혼란은 참여자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참여자13) 인간중심이론에서는 효율성 확실성을 강조하지 않는 데다가 비구조화 상담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답했다. (참여자17) 한편으로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집단이 아무런 체계 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왠지 불안했던 감정.

### 라. 범주4 - 집단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

일부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는 주로 과거에 논의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Jorgensen, 2016).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대집단에서 누군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면, 그 주제에 관해 참여자들은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첫 주자가 개인적인 주제를 제기하면 이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관련이 있는 일부 참여자들 간의 공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참여자들이 집단에서의 소외감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집단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Mearns, 2014). 이는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참여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이런 소외감을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대집단 엔카운터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참여자1) 인원이 많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언제나 존재한다. (참여자10) 인간중심체험 집단 상담할 때 팀을 두 개로 나누었으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 마. 범주5 - 침묵에 대한 양가감정 경험

대집단의 개인들은 많은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단에 대한 책임감에서 느슨해질 수 있다. 이를 Mearns(2014)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반응의 진공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참여자가 반응할 것을 기대하며 물러나 있을 수 있다. 또한, 침묵은 의견 불일치의 표시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침묵이 흐르는 것에 견디기 힘들어하기도 하며 저항하기도 하면서 양가적 감정을 경험한다.

(참여자7) 말을 하기 싫은 날에도 침묵은 저항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나 싶어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참여자10) 나는 침묵을 깨고 싶어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 2. 두 번째 영역: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

두 번째 영역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에는 ‘공감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지지받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 ‘어두운 길에서의 가로등 불빛’, 침묵을 받아들이기, 갈등 자체가 아닌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짐을 자각함, 갈등에 온전히 머뭇머뭇이라는 6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가. 범주1 - 공감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지지받기

대집단의 크기와 다양성은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Mearns, 2014). 또한, 대집단에서의 개인은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Brison et al., 2015).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이 공감을 주고받는 것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받는 경험을 한다.

(참여자7) ‘나’ 를 소중하게 여기는 구성원들을 보았다. 이를 통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공감과 이해받는 느낌을 알았다. (참여자25)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구성원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 나. 범주2 -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

참여자들의 공감을 통해 집단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는 다른 참여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으로 이어지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참여자10)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자28)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 다. 범주3 - ‘어두운 길에서의 가로등 불빛’

대집단은 매우 활기차지만 동시에 두려운 경기장 같은 곳이고, 대집단의 자유로움은 일상적이지 않아 혼란을 주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은 몇몇 힘든 감정들, 심지어 분노까지 다루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집단 작업의 잠재력을 목격하게 된다(Mearns, 2014). 참여자들은 체험하기 전에는 막연했지만 작은 통찰과 자각을 얻으며 대집단 엔카운터가 ‘어두운 길에서의 가로등 불빛’과 같이 느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으로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했다.

(참여자36) 인간중심 체험 집단 경험은 제게 “어두운 길에서의 가로등 불빛” 같음. 막연했던 집단 상담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대낮 같은 빛은 아니지만 작은 통찰과 자각이라는 가로등 불빛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자33) 나는 이론과 연관해서, 엔카운터 경험을 통해 내 안에 문제들로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찾고 있는 단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22) 비구조화된 대집단일지라도 집단원분들은 한 마디 한 마디 쌓아 올라왔고 저의 생각도 점차 폭을 넓혀감. 이러한 잠재력이 저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라. 범주4 - 침묵을 받아들이기

참여자들은 집단과정에서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침묵이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과정으로 느끼고 있다.

(참여자7) 침묵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참여자16) 집단에서 침묵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이다.

### 마. 범주5 - 갈등 자체가 아닌 쌓여있는 감정들이 터짐을 자각함.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며, 지금-여기의 삶을 누리며, 유기체의 경험을 신뢰한다(Rogers, 1970). 대집단 엔카운터에서 느낀 갈등에 힘들어하기보다는 과거의 갈등에 대한 경험을 지금-여기로 가져와서 이전의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짐을 자각하게 된다.

(참여자32)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쌓여서 정말 별 것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터진다. (참여자9) 옛날에는 조금만 갈등이 찾아와도 엄청 예민하게 터진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쌓였던 것들이 터진 것이지 내가 그 순간의 갈등의 느낌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음.

#### 바. 범주6 - 갈등에 온전히 머물

참여자들은 불편했던 대집단 엔카운터의 갈등에 온전히 머물러 보면서 갈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느껴보고 갈등에 견디는 힘을 찾아간다.

(참여자32) 차라리 갈등에서 오는 부정적 느낌들을 엔카운터 시간에 충분히 느끼니까 나중에 그 불쾌했던 감정이 많이 생각나지 않고 빠르게 열어졌다. (참여자8)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에도 온전히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걸 배웠다.

### 3. 세 번째 영역: 내 삶의 주체성 회복

세 번째 영역인 내 삶의 주체성 회복은 내 안의 또 다른 가능성 발견하기, 타인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나의 잣대 내려놓기, 내 감정을 알게 됨, 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 ‘나의 삶, 나의 반응의 주인공이다 권위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5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과 반응의 주인공이자 권위자가 나 자신이라는 삶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 가. 범주1 - 내 안의 또 다른 가능성 발견하기

Mearns(2014)이 ‘대집단이라는 무대가 주는 힘이 너무 강해서 작은 시도조차 커다란 보상을 가져 온다’ 고 했듯이, 참여자들은 원래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의 나를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 안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참여자20) 평소에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보다” 생각했던 것들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23) 나는 자존감이 낮아 내가 될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타인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 나. 범주2 - 타인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나의 잣대 내려놓기

참여자들의 알아감이 타인에 대한 자기의 잣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알아감은 타인에 대한 서툰 정의에 대한 성찰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2) 엔카운터 집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추측과 판단으로 인해 타인을 너무 많이 평가하면서 살고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31) 힘들었던 점은 솔직하게 임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게 어려웠다.

#### 다. 범주3 - 내 감정을 알게 됨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을 지나오며 참여자들은 미해결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잡한 감정이 명료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복잡하고 미해결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힘을 준다.

(참여자27) 외향과 내향이 반반인 성격으로 매순간 양가감정이 들어서 힘들지만, 인간중심체험을 통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빠르게 드러내면서 복잡한 감정이 명료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참여자2) 나의 미해결된 감정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 라. 범주4 - 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

비구조화된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함은 ‘실제세계’의 경험과 연결된다. 참여자들은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을 통해 행동의 방식이 아닌 집단에서의 나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 깨닫는다. 이는 집단 밖에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살아온 과정-생존전략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참여자31) 행동방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중요하다고 배웠음에도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여자20) 지금, 현재의 나. 실존하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마. 범주5 - ‘나의 삶, 나의 반응의 주인공이다 권위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Rogers(1970)가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제공해 준다면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자기실현 경향성이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대집단 엔카운터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이 되어감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하며 자신이 삶과 반응의 주인공이자 권위자임을 깨달으며 자기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였다.

(참여자8) 사람은 자기실현경향성에 의해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에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점을 보게 되었다. (참여자25) 나는 스스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구성원 중,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고, 자각하는 것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여자39) 기본적으로 유일한 동기화 된 힘이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며 결국 내 삶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4년제 여자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집단 엔카운터를 실시하고 그들이 집단과정 안에서 어떤 내면의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어떤 개인적 변화들을 경험하였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주관적인 체험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공통의 주제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합의적 질적 연구의 수정본 ‘CQR-M’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은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한 학부생의 체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한 다양한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대집단이 주는 도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찾는 과정, 내 삶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3개의 영역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한 학부생들의 자기성찰의 경험과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한 다양한 대학교육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중심 상담을 기반으로 한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한 개인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2) 대집단 엔카운터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자기성찰 경험, 3)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 인간중심 상담의 대집단 엔카운터는 많은 참여자를 자원으로 하여 개개인에게 실제적인 환경을 가감 없이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개인 성장과 관련하여 지지와 도전을 동시에 강조하는 인간중심 훈련은 이를 경험하는 방식과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면에서 강력하다(Mearns & Thorne, 2012). 집단과정을 경험하고 집단에서 존재함으로써,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참여자들은 현실의 주제들을 집단 내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와 도전을 받으며 촉진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대집단 자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개방하고 직면하며 자신에게 집중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도전과 갈등을 겪으며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집단의 과정에서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집단 엔카운터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상담 프로그램에 비해 대규모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인문사회 분야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기반이 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성찰을 통한 삶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대집단 엔카운터가 주는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였다. 비구조화된 대집단 엔카운터의 특성상 참가자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Mearns, 2014). 대집단 엔카운터에서 어느 누군가 발언을 시작하면, 그 주제에 관한 피드백들이 이어지고, 다양한 참가자들의 피드백은 혼란을 가중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피드백들은 이것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대집단이라는 무대, 엔카운터 집단의 참여자 개개인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분위기, 그리고 촉진자의 최소한의 비지시적 개입의 조화가 참여자들의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른 다양한 집단의 경험들은 수용되고 다루어지는 데에 반해 일부 참여자들의 과거에 논의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공유에서 비롯된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집단의 발전과정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집단의 초기에 참여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결국 집단에서의 존재 방식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 자신의 실존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대집단 엔카운터를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인데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상담수련과정생들로 구성되었다면 학부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었다. 소집단이 쉽게 구조화가 가능하고 신뢰의 과정으로 쉽게 이를 수 있는 반면에 대집단은 구조화가 어렵고 집단의 상황을 실제적인 상황과 일치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또한, 대집단 엔카운터에서의 개인은 참여자들의 표현되는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은 명백한 행동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가 피드백을 집단의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Butler & Fuhriman, 1983; Davies & Jacobs, 1985; Haslett & Oglivie, 1988). 엔카운터 집단을 통한 개인의 성장에 관한 Brison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심리학과 학부생들은 단기 엔카운터집단을 통해 개인성장과 상담 기술의 개발을 성취하였고, 비지시적 개입을 통해 유연하고 정서적으로 유능하며 더 공감적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비교적 짧은 엔카운터 경험을 하였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대학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데에(Kim, 2011) 대집단 엔카운터 경험에서의 지지와 도전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학부생들의 경험은 엔카운터 그룹을 단 몇 시간만 지속해도 대부분의 학부생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장 동기를 남기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강의의 분위기는 더욱 개방적이고 직

접적이면, 더욱 진솔하고 건설적으로 된다는 Motschnig(201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Motschnig(2019)에 따르면 심리 치료와 상담이 아닌 영역의 교육에서도 덜 강력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인간 중심적 환경과의 호환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과정과 워크숍의 시간이 매우 짧더라고 인간중심의 작은 집단작업과 나아가 온라인상의 반응이 과정커뮤니티와 공유함으로써 여전히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학부 과정 중에 강의의 일부로써 진행된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참여자들에게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집단 엔카운터를 경험한 참여자는 집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는 외롭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아닌 집단과 자신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의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소외감이 집단의 다음 발달 단계로 이끌어 집단 내에서 느끼는 개인의 감정과 존재 방식에 대한 실존적 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기 엔카운터 집단경험을 학부생들에게 제공한다면 좀 더 많은 자기 탐색을 이끌어내고 온전한 자기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의 생생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서울에 소재한 4년제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문사회전공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좀 더 다양한 참여자(나이, 성, 경험, 환경적 특성 등)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참여자의 보고에서 집단의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집단 엔카운터가 좀 더 길게 수행되어 참여자들이 충분한 자기 탐색을 가질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반구조화된 응답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후속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경험에 대한 풍성한 설명과 깊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포커스 집단과 같은 대안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arfield, G. L. (2019). The evolution of person-centered encounter: creating egalitarian environments for mattering, meaning & healing.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3), 228-242.
- Bazzano, M. (2019). Pandas in a zoo: facilitating encounter in institutional settings.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4), 334-344. doi:10.1080/14779757.2019.1680422
- Bowen, M., Miller, M., Rogers, C. R., & Wood, J. K. (1979). Learnings in large groups: Thei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ducation*, 100(2), 108-117.
- Brison, C., Zech, E., Jaeken, M., Priels, J. M., Verhofstadt, L., Broeck, N., & Mikolajczak, M. (2015). Encounter groups: do they foster psychology students'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therapeutic attitudes?.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4(1), 83-99. doi:10.1080/14779757.2014.991937
- Butler, T., & Fuhriman, A. (1983). Curative factors in group therapy: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Small Group Behavior*, 14(2), 131-142.
- Cho, E. S. (2019) The need for making fictional narratives for promoting self-growth in college lib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2), 217-240.
- Davies, D., & Jacobs, A. (1985). "Sandwiching" complex interpersonal feedback. *Small Group Behavior*, 16(3), 387-396.
- Draskóczy, M. (2019). Collaborative facilitation of encounter groups.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 doi:10.1080/14779757.2019.166741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W. W. Norton Company.
- Haenga-Collins, M., Solomon, M., Woodard, W., Rodgers, B., & Tudor, K. (2019). Bicultural encounter.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3), 255-273. doi:10.1080/14779757.2019.1650806
- Haley, J., & Yates, R (2019). Exploring the value of person-centred encounter groups today - relevance, purpose and importance.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11. doi:10.1080/14779757.2019.1667417
- Haslett, B., & Ogilvie, J. R. (1988). Feedback processes in small groups. *Small Group Communication*, 385-401.
- Hill, C. E. (1990). A review of exploratory in-session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3), 288-294.

- Hill, C. E. (2012). *Helping skills*. Seoul, Korea: Hakjisa.
- Hill, C. E. (2016).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Seoul, Korea: Hakjisa.
- Jeong, J. Y. (2002). *The effects of encounter group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su National University, Yeosu, Korea.
- Kang, M. G. (1999). *The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the social skil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Kang, M. J.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ovice counselor's self-reflection and counselo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ncounter group counse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C. S. (2019).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ors' experiences in encounter gro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Busan, Korea.
- Kim, H. S. (2011). *The effects of self-growth program on the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Kim, I. K. (2003).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training on the cell leaders' 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2000). *A study on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marathon encounter group and self-re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Q. (2000). *The effects of the encount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hristian's self-concept and human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Kim, S. Y. (2006). *The effect of unstructured group counseling on adults self-disclosure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 Kim, Y. H. (2003). *The effects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sociality of elementary school seni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Korean Social Trends 2019.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2019.12.19).
- Kwon, K. I. (2011).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group dynamics in group counseling.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1(1), 89-144.
- Joe, M. S. (2003). *The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Jorgensen, L. I. (2016). Encounter group counsellor training with pre-service industrial

- psychologists: A pilot study.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28(3), 300-303. doi:10.1080/14330237.2016.1185920.
- Lecomte, C., Savard, R., Drouin, M. S., & Guillon, V. (2004). “Qui sont les psychothérapeutes efficaces? Implications pour la formation en psychologie” [Who are the efficient psychotherapists? Implications for training in psychology]. *Revue Québécoise de Psychologie*, 28(3), 7-11.
- Lee, E. J., & Lee, M. H. (2015).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novice counselors' self problem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3), 1-24.
- Lee, H. D., Kim, S. H., Seol, K. M., Kim, C. D., & Kim, J. H. (2010). *Group counseling*. Seoul, Korea: Central Aptitude Books.
- Lee, H. M.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an adult encounter group counse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Busan, Korea.
- Lee, J. H. (2002). *The effects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the group cohesion the self-actualization*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Korea.
- Lee, J. H. & Kim, J. H. (2000). *Principles and practices of group counseling*. Seoul, Korea: Bobmunsa Books.
- Lee, Y. S. (2019).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adolescents of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an Hyo University, Incheon, Korea.
- Mahrer, A. R. (1988). Discovery-oriented psychotherapy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3(9), 694-702.
- Mearns, D. (2014). *Person-centred counselling*. Seoul, Korea: Hakjisa.
- Mearns, D., & Thorne, B. (2012). *Person-centred counselling in action*. Seoul, Korea: Hakjisa.
- Min, Y. J. (2003). *The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peer relations and person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 Motschnig, R. (2019) Facilitating encounter within an academic course on communication,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4), 345-359, doi:10.1080/14779757.2019.1680420.
- O' Hara, M. (2019). Radical intentions: twenty-first century reflections on facilitation in person-centered approach large group workshops.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3), 214-227.
- O' Leary, C. J. (2019). Enchantment, trouble, and learning: reflections of a couple and family counselor participating in person-centered large group encounters. *Person-Centered &*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3), 274-285.
- Park, H. C. (1996). *Effect of encounter group on the self concept of juvenile delinquent*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M. J. (2014). *Experience study of group counseling person-centered*. Duksung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orea.
- Park, M. T. (1992). *The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the self-concepts of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Ray, D. C. (2019). The encounter group in counseling training: is it therapy?,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4), 314-324. doi:10.1080/14779757.2019.1680425
- Rogers, C. R. (1970). *On encounter groups*. New York, NY: Harper & Row.
- Ryu, S. H. (2013). *Pastoral application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by carl rogers: Focused on 20-25 year-old young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Sohn, H. G., & Choy, C. H. (1992). Ego identity formation and identity crisi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1992(1), 473-482.
- Sin, S. J. (2005). The effect of encounter group counseling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2(1), 23-46.
-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28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lson, J., Chazeaux, F., Francis-Smith, C., & Dunn, K. (2019). When encounter becomes electric: an online group experience,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3), 299-307.
- Yoon, S. I. (2003). The effect of 'me and our encounter group' program on the promotion of self-respect and sociality.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2(1), 71-97.
- You, Y. D. (2011). The effects of a semi-structured group counseling for the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Korea Family Studies Association*, 23(4), 41-66, doi: 10.21478/family.23.4.201112.002
- Zauner, E. (2019). Facilitating groups - responsibility of person and role. *Person-Centered &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18(3), 286-298.